

首都開發의 戰略*

김 현 옥

(서 울 特 別 市 長)

目 次

- 1. 歷史의 轉換點
- 2. 建設의 次元性
- 3. 行政의 證據性
- 4. 行政의 融通性

平素에 恒常 尊敬해 오던 李漢彬博士의 분에 넘치는 紹介를 받게된 것을 真心으로 榮光스럽고 名譽롭게 생각합니다.

四百萬市民 아니 三千萬民族中에서 選擇된 여러분들을 모시고 더구나 傳統과 名譽속에 健在해온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都市 및 地域計劃科에서 말씀드릴 機會를 갖게된 것을 또 한 榮光으로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을 적어서 여러분에게 油印해 드렸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갑자기 나오게 되어 準備가 없었음을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의 心情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여러분으로부터 먼저 듣고싶은 立場입니다.

1. 歷史의 轉換點

都市計劃에 關해 일하고 배운바 別로 없는 本人이 서울의 大行政을 맡아 일해 온지 어언 二年이라는 歲月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大統領閣下의 愛心的인 分부를 착실히 받들면서 서울을 지켜왔고 이제부터는 골목마다 거리마다 時間과 場所에 拘碍없이 幸福의 씨를 심고 그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기 爲하여 東奔西走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二年이라는 歲月이 電光石火처럼 눈깜짝 할 사이에 지나쳤다고도 여겨집니다만 돌이켜 보면 지난 二年이라는 歲月은 우리나라의 社會的인 諸般 與件에 비추어 결코 짧은 期間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期間에 이렇다 할 實績과 證據를 여러분 앞에 내 놓을만한 것 없이 지내오고 말았습니다. 이點 여러분께 민망스러이 생각하며 앞으로 失手 없이 착실히 서울의 建設을 해 나가야 할 責任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

*本論文은 1968年 4月 30日에 本大學院에서 行한 特講內容을 基礎로 하여 補完整理한 것이다.
(編輯者 註)

속 아껴주시고 大業이 成就될 수 있도록 후원 해 주십사는 당부를 드립니다. 저는 都市計劃이나 建設에 關해서는 專門家가 아닙니다. 軍隊生活 20年동안에 겪고 배워 온 體驗以外에는 別로 자랑할만한 것이 없읍니다. 先輩들이나 研究한 분들에 依하면 서울이 600年의 歷史를 지켜왔고 民族의 歷史는 半萬年의 歷程을 걸어 왔읍니다. 이러한 長久한 歷史 속에서 우리가 사는 時點이 現在이기 때문이 아니라 過去의 歷史를 돌이켜보더라도 現在는 歷史의 한 轉換點이 되고 있는 貴重한 時期입니다. 五千年의 歷史를 通하여 우리 民族이 걸어 온 길을 우리는 그대로 無氣力하게 단습만을 해서야 되겠읍니까? 지금 이 時點의 祖國은 낡은 思習과 舊秩序의 整頓을 要求하고 있읍니다. 工場이 不足하고 高層建物이 不足된 탓으로 해서 生活必須品마저 外國產에 依存하지 않으면 生活이 營爲될 수 없다고 하여 우리는 前進이라고 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先進들을 向해 몸부림치며 달려가야만 하고 또 달려가고 있읍니다. 先進의 문턱을 넘어서기 為하여 우리가 몸부림쳐야 할 關係分野는 너무나도 많이 있읍니다. 例를 들어 建設 하나만이라도 後進에서 先進으로 跳躍해 보자 하였을 때 우리가 하여야 할 地下道 高架道路의 建設은 이미 20~30年이나 40~50年 以前에 지금 先進이라고 自處하고 있는 나라들이 벌써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年間을 通해 計劃하고 파헤치고 새로 改造하는 事業을 일컬어 「두더지」 혹은 「브르도쟈」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事實은 그 自體가 五千年 歷史의 經路를 보아서 名譽로운 이야기는 못 됩니다. 美國이나 日本사람의 境遇에 「두더지」나 「브르도쟈」라는 別名은 最少限 30年 혹은 50年 前에 벌써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서 벗어나기 為해 時間的으로 그 期間을 短縮시키기 為해 몸서리 나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것이 아니겠읍니까?

2. 建設의 次元性

建設이라고 하면 大概 陸橋나 地下道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展開해 온建設은 民族과 祖國의 發展과 새로운 精神力を 創造하는 精神建設이 重要한 部分입니다. 이를 다시 事務的으로 區分해서 이야기 하면建設은 多次元의이어야 합니다.建設은 눈에 보이지 않는 無形的인建設과 눈으로 볼 수 있는 有形的建設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까지는 國民들로부터 받아들이는 稅金으로서 漢江에 둘을 던지는 式의建設을 해 왔읍니다.多次元의이라는 것은 漢江建設에서 그 例를 들어 說明할 수 있읍니다. 漱江建設을 現在까지 四次元의인 進展을 보았읍니다만 앞으로는 10次元 以上으로 跳躍하리라고 봅니다.

첫째 建設——一次元的

둘째 收益——二次元的

셋째 投資——三次元的

넷째 間接投資——四次元的(建設 以前에 입은 被害를 建設이라는 手段을 通해서 막을 수

있는 것)

이 model 을 例로 들어 漢江建設에 비추어 보면 最少限度 二次元 以上이 保障되지 않으면 有能한 行政官이나 有能한 指導者에 依해서 이룩된 建設이라고 看做할 수는 없읍니다. 이리하여 汝矣島 漢江建設을 今年 1月 4日 褐한에도 不拘하고 大統領閣下를 모시고 첫발을 내딛었읍니다. 벼려졌던 漢江流域에 築臺를 쌓고 돌을 새로 쌓아 벼려졌던 땅을 埋立하고 整地하여 道路를 建設 하였읍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收益을 計算해 보니 最少限 120億 程度로 基準을 짓고 있읍니다. 慾心장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만 120億을 가지고 다시 再投資할 생각입니다. 이 再投資에는 첫째로 漢江 南쪽과 北쪽을 陸續化하게 하는 施設이 必要합니다. 漢江에는 現在 다리가 세개 있습니다. 即 광진교 · 第一漢江橋 · 第二漢江橋이며 지금 建設中에 있는 것이 第三漢江橋와 서울大橋의 두개입니다. 서울大橋는 麻浦電車 終點에서 汝矣島를 通해 가지고 永登浦로 나가고 있읍니다. 이것 以外에 明年度에는 새로운 교량을 4個를 더 架設 할 計劃이며 거기에 텔레 두개를 더 해서 全部 11個의 施設로서 漢江 南쪽과 北쪽을 建設을 通해 陸續化 시킬 計劃입니다. 여기에 쓰고 남은 돈은 戰災로 因해서 傷處를 입고 있는 板子집 13萬棟을 處理하기 爲한 아파트 或은 集團住宅으로 改良하는데 投資할 생각입니다. 나머지 資金은 繼續해서 漢江下流와 上流를 丹粧하고 建設하는데 投資할 計劃입니다. 그래서 모래무지가 되다시피 모래에 파묻혀서 進行하고 있는 汝矣島建設의 過程이 順調롭게 이루어진다면 漱江建設은 自動的으로 財源을 形成할 뿐 아니라 서울이 建設을 通해서 새로이 살아날 活路가 開拓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오늘의 建設은 四次元의이여야 하고 萬一 四次元이 못 된 境遇에는 最少限 二次元의인 것은 되어야 합니다. 建設에서 오는 收益을 二次元의인 境遇에 어떻게 說明을 할 것인가하면 例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 세웠을 때에 하루에 그 다리를 利用하는 通行人의 數에 依하여 決定됩니다. 그것은 決코 有料가 아니라 하더라도 無形의 收益인 것입니다.

그 以外에 꽃을 심는 일을 例로 들어 봅시다. 꽃을 심어 놓으면 이를 잘라가는 市民이 있읍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꽃을 잘라가지 않는 市民으로 이끌어 올려야 합니다. 귀찮다고 생각하면 相對方은 限無이 귀찮은 存在이고 그들이 내게 利益을 줄 수 있는 벗이라고 생각하면 限無이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우리 人間이기에 잘라가면 또 심고 잘라가면 또 심어서 언젠가는 그들이 굴복하면 그때는 그 꽃은 심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四百萬 市民의 것으로 昇華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無形의 市民을 키우는 偉大한 힘의 源泉이 되며 遠大한 꿈을 가진 國民들로 構成된 精熱과 氣運이 흘러넘치는 社會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紙上에서 王왕 展示에 關한 이야기를 봅니다. 政府에서 하는 모든 일을 善意의 展示로 100% 해야 합니다. 그 展示를 通하여 政策과 業績은 比判을 받아야 하고 그 展示 自體의 褐백을 가려 그것이 健 展示인 境遇에는 더욱 助長시켜야 하고 悸 展示인 경우에는 우

리는 많이 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의 目標가 市民을 爲하는데 있고 그 至上の 目標가 國家를 爲한 길이라면 現代의in 약간의 不合理는 忍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관용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더 높은 次元에서의 調和를 意味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에서 建設은 祖國의 國土로 하여금 우리의 口味에 맞는 環境으로 再構成하는 大業이니만치 그속에 약간의 琴로움을 참고 이겨내야만 할 것입니다. 河川은 河川대로 河川부지는 河川부지대로 山은 山·밭은 밭대로 논·논길·人道 및 車道는 각己 그대로 調和를 이루어 우리가 願하는 대로의 祖國을 創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祖國의 創造는 民族의 建設과 併行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自然을 한번 改造해 볼려는 心情에서 敢히 大自然에 挑戰하는 것입니다.

3. 行政의 證據性

行政은 무엇보다도 證據行政이 되어야 합니다. 總督府 時代의 官僚意識이 머리에 꽉 차있는 사람은一方行政 밖에는 모릅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道具가 있습니다. 法令이나 條例나, 規則이나 하는 것은 그들이 몇대로 行勢할 수 있는 좋은 뒷 바침이 되는 것입니다. 政治, 經濟, 教育, 文化 모든 것이 다 證據爲主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도行政은 特히 證據爲主의 行政이어야 합니다. 時代는 이제 證據行政을 要求하고 있는바 사진을 찍어서 相對方이 願하는 書類를 만들도록 하는 行政에서 始作해서 市民을 爲해서는 둠소家家戶戶들 찾아다니면서 自己의 犠牲으로 市民에게 奉仕한다는데서 부터 名譽와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名譽나 權威나 威身이라는 것은 어떤 문별이나 地位에서 보다도 自己가 남을 爲해 犠牲하는 곳에서 發見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몇 사람만이 모인 集團에서 부터도 그中에는 좀 뾰족한(特異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며 自己가 잘났다고 自處하면 할수록 相對方은 자꾸만 격리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自己가 믿지고 犠牲하는 데에 있어서는 真正한 權威와 名譽와 人間됨이 더 높은 次元에서 累續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權威와 名譽는 親切 證據行政 그리고 行動과 思考를 通하여 精進을 거듭한 結果가 行動으로 옮겨진 結實로서 評價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서울의 改造와 漢江의 建設을 서둘고 있고 板子집을 뜯고 道路를 擴張하기 爲하여 나는 이렇게 보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몇십年 後의 歷史가가 글자 한字라도 좋으니 60~70年代 우리의 祖上이 놀고 먹지 아니하였다는 內容의 句節을 만들게 하기 爲하여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제가 크게 標榜하기를 建設과 行政은 不可分의 關係가 있어서 併進되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하드라도 實踐에 옮기지 않는 限 所用이 없읍니다. 오늘날의 行政은 아무리 좋은 着想을 갖고 있어도 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웨쳐도 스스로 行動하여 實踐하지 않는 한 時代가 要求하는 真正한 祖國이 命令하는 愛國으로는 連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

더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읍니다만 서울엔 400萬市民이 사니까 덮어놓고 서울은 400萬市民의 것이라고 말 할 것입니다. 또 世界는 많은 人類가 살고 있으니 世界는 많은 人類의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世界는 人類의 것이 아니고 서울은 400萬市民의 것이 아니며 祖國은 三千萬 人類단의 祖國은 아닌 것입니다. 오로지 世界는 人類의 번영을 爲해 苦心하는 者의 것이며 서울은 서울이 自由스럽고 平和스러운 고장이 되도록 걱정하고 아끼며 이 社會가 훌륭하게 發展되어 갈 수 있도록 골똘히 할 바를 마땅히 이행하는 者의 서울인 것입니다. 옆집이야 불이 나든 말든 이 社會야 어찌 되든 말든 오불판언이다 하는 사람의 서울은 아닌 것입니다. 實로 서울의 痘癥 人類의 痘蟲, 이 平和스러운 自由를 파괴하고자 하는 人類의 發展을 妨害하고 平和에 逆行하는 사람은 亦是 서울의 主인이 될 수 없으며 世界의主人 또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4. 行政의 融通性

우리는 흔히 百年大計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行政은 百年大計일 수는 없습니다. 요즈음에 있어서는 計劃은 一年小計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生活은 나날이 달라지고 오늘까지는 Bus를 타고 다니다가 來月쯤은 taxi를 타고 來年엔 自家用 하나쯤 사도록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一年小計主義는 master plan에 應하는 그러한 計劃을 全的으로 不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어찌하다가 條例나 法律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가 어렵고 까다롭다 하여 그저 묵과하는 수가 大端히 많습니다. 百年大計라는 그러한 美名下에서 善意의 犠牲을 當하는 部分이 얼마만큼 있느냐를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例를 들어 서울의 都市計劃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지금 調達廳에서 中央廳 옆으로 해서 孝子洞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의 路幅이 25m 計劃인데 지금 23m 幅입니다. 그런데 양 옆 골짜기에 집이 있고 자하문을 넘어서 세검정으로 가는데 이 길옆 골짜기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으며 이때 그 길이 받아들여야 할 容量이 어느 程度냐를 計算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5年後 10年後에 우리의 後輩가 그 길을 고치고자 할 때 百年大計라는 것으로 억매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집을 내동생에게 양보를 해 주어서 들어와 살면서 문간벽을 치고 두방을 하나로 하여 홀(hall)로 만드는 것을 막아서는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標榜한 것이 條件附 都市計劃인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1~2年 以內에 市財源으로서 5年前의 計劃인 25m로 철거할 수 있는 能力이 있으면 끓어두되 언제 하게 될련지도 모를 것을 百年大計라는 美名下에 끓어두면 여기 살고있는 住民들은 所謂 百年大計의 權威와 자랑과 名分으로 가슴을 벌리는 사람들의 좋은 밤으로 도리여 犠牲을 當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事實과 부합될 수 있도록 補完하고 修正되도록 하여 當初의 計劃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計劃의 一貫性만을 고집하여 不合理한 計劃이라도 實踐하여야 한다는

時代착오는 犯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日常生活中에서 자주 不合理하고 不自然스러운 點들을 發見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自身이 不適當하다고 느꼈을 當時에 그 要素는 바로 폐야만 합니다. 우리 社會와 우리 살림살이는 이렇게 하여 시간 시간이 달라져가야만 합니다. 이렇게 祖國이 要求하는 새로이 命하는 바를 法律이 그러하고 條例가 그러하고 計劃이 그러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편 사람이 되고 맙니다. 民族이 創造도 없고 祖國이 建設도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敗亡의 길을 걸게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보다 빠른 時間內에 世界를 通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主體性이니 主體意識이니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日本사람도 있고 美國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主體性 主體意識을 부린다고 해서 日本사람들이 아무 묘책 없이 미국 사람들이 아무 理由없이 우리에게 와서 큰 절을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主體性을 標榜하지 않는다 해서 아무 까닭없이 美國사람에게 큰 절을 하기를 願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建設을 通한 多次元의인 것, 行政을 통한 證據 또 우리의 지혜와 정열을 모아야 할 여러 部分을 集約해서 그 結果를 가지고 對等한 立場에서 舞台에 나서야 합니다. 汝矣島와 漢江에 建設되고 京釜高速道路와 仁川高速道路가 뒤아지며 판자집이 아파트로 바꾸어지며 漢江이 물줄기를 바로 잡아서 料理할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접어 들었을 때 世界가 우리를 向하여 보는 눈의 角度는 달라질 것입니다. 證據를 通하여 主體性과 主體意識을 내 세워야 하며 이를 爲해 우리는 숨가쁘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一致團結된 行動으로 呼吸이 맞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合쳐서 한사람 以上 隊列을 形成하고 두사람 이상 마음의 結束을 이루어야 하는 合唱된 民族으로서 團結된 民族으로서 가슴을 벌리고 긍지를 가져 볼 時代가 五千年의 過程을 通하여 바로 이때라 생각합니다. 이 때 못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못 하고 다음 우리의 아들이 크거든 할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희생과 代價를 치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祖國과 時代가 要求하고 命令하는 바에 따라 祖國의 建設과 名譽를 爲해 우리 다 함께 맨발로 몸부림치며 달려 갑시다. 감사합니다.